

2. 둘째 노래 (2:8-3:5)

<여인> 2:8-9

개역	사역
8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8 들어라, 내 연인의 소리! ¹⁾ 보아라, 그이가 오고 있다. 산을 뛰어 오르고 언덕을 가로질러 오는구나.
9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 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9 나의 연인은 노루와 같고 젊은 사슴과 같구나. 보라, 그이가 우리 담장 뒤에 서서 창틈으로 기웃거리고 창살틈으로 쳐다보는구나.

여인은 “내 연인의 소리”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자가 자기에게 달려오는 모습을 소리로 표현한다.²⁾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10절에 나오고, 8-9절은 남자가 자기에게 오는 모습을 그린다. 여인은 집안에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이미 들었고, 그가 오는 모습도 보았다. 그의 연인은 노루와 젊은 사슴처럼 산을 넘어 빨리 달려오고, 집안에 있는 여인은 산을 넘는 노루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산을 뛰어 오르고 언덕을 가로질러 온 사랑하는 남자는 여인의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 담장 뒤에 서서 창틈으로 기웃거리고 창살틈으로 쳐다본다. 8절에서도 남자가 오는 것을 세 동사(오다-뛰어 오르다-가로지르다)로 표현하였는데 9절에서는 여인을 기다리는 모습을 세 가지 동사로 묘사한다(서다-기웃거리다-쳐다보다).

집안에 있는 여인에게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일 리 없지만 두 사람의 영혼이 서로 교감하기 때문에 조용히 접근하는 그 모습을 여인은 자세히 보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달려오는 모습을 소리로 들었던 이 여인은 이제 자기에게 조용히 접근하는 연인에게서 부드럽게 초청하는 소리를 듣는다. 이제 그의 그윽한 소리가 들린다.

<남자> 2:10-14

1) ‘콜 도디’를 ‘내 연인의 소리’로 옮길 수도 있으나 ‘콜’이 ‘들으라’는 감탄사로 옮기는 것이 좋다. NIV, NET, TNK 등에서는 “listen!”으로 옮겼다. 이것은 다음 구절의 ‘히네’와 짝을 이루어 청각과 시각의 이미지가 분명히 나타난다. 그렇지만 ‘보아라’로 옮겼을 때에는 “나의 연인”이 서술어가 없이 홀로 있게 되기 때문에 다소 어색하다. NIV, TNK, NAS 등은 “들어라, 나의 연인!” 하고 그냥 두었으나 NET는 “is approaching”을 첨가하였다. 여기에서는 ‘소리’를 첨가하여 ‘나의 연인의 소리’로 옮겼다.

2) 처음 두 구절은 히브리어로 ‘콜 도디 히네 제 바’이다. 단음절과 두 음절로 된 다섯 단어는 마치 스타카토로 노래하는 것처럼 들린다.

개역	사역
10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0 나의 연인이 응답하여 ³⁾ 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아름다운 자여, 일어나오, 어서 감시다. ⁴⁾ ”
11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11 이제 ⁵⁾ 겨울이 지났고 비도 그치고 우기가 ⁶⁾ 끝났기 때문이요.
12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2 땅에는 꽃들이 피고 노래의 계절이 ⁷⁾ 다가왔다고. 멧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서 들려온다오.
13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 무화과나무에는 햇열매가 익어 가고 포도나무 꽃송이는 향기를 내뿜는다오. 나의 사랑, 나의 아름다운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감시다.”
14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 나	14 “큰 바위의 틈새,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바둘기여, 그대 모습 나에게 보여주고 그대 목소리 나에게 들려주오. 그대 목소리는 감미롭고 그대 모습은 사랑스럽기 때문이오.”

여인은 기대하던 소리를 듣는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고 남자가 청하는 말이 10-13절의 단락을 열고 닫는다.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유월절에 부르는데, 아가서의 내용은 그 계절과 잘 맞는다. 겨울 철 우기가 지나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화창한 봄이 되어서 눈과 코와 귀와 입으로 새로운 계절을 느낄 수 있다. 우기에 내린 비와 따뜻해진 날씨 때문에 이제 여러 종류의 꽃이 필 것이다. 또한 겨울을 지낸 새들이 노래하는데, 이 시기에는 새들이 노래한다. 새들의 노래는 봄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짝을 찾는 소리이다. 남자는 멧비둘기의 우는 소리가 ‘우리’ 땅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낸다.

그는 계속하여 무화과의 햇과일과 포도나무 꽃송이를 말한다. 무화과나무는 3-4월에 푸른 열매를 맺는데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무화과에서 열매를 찾

3) ‘응답하다[아나]는 표현은 여인이 집안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음을 전제한다.

4)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일어나시오,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여, 가자”이지만, 부드럽게 번역하려고 히브리 시의 대차구조적 형식을 살리지 않았다. ‘어서’라는 말은 없지만 두 번 반복되는 ‘라호’(그대 스스로)를 살려서 표현하려고 첨언하였다.

5) ‘보라[히네]를 ‘이제’로 옮겼다.

6) ‘우기’라는 말은 삽입한 단어이다. ‘비’가 그치고 끝난다는 두 동사의 주어이지만 둘째 동사에는 ‘우기’라는 말을 넣어서 옮겼다.

7) ‘자미르’에는 ‘전정하다’(pruning)의 의미도 있다. NASB, TNK는 ‘전지의 계절’로 옮겼고 NET는 ‘노래의 계절’과 ‘전지의 시절’의 두 가지를 모두 살려서 번역하였다.

다가 얻지 못하자 저주하신 기록이 있는데 그때 찾으신 열매가 푸른 열매이다. 여인이 남자의 말을 듣고 밖으로 나온다면 그 햇열매를 함께 먹으면서 산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무렵의 포도나무는 노랑과 파란색의 꽃을 피우는데 포도나무가 그렇게 꽃을 피우고 향기를 토하는 것은 벌이나 나비를 불러서 수정하도록 초청하는 것이다.

산을 넘고 들을 가로 질러서 온 남자는 집안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봄의 풍경을 보여 주고 사랑의 노래를 들려준다. 새들의 사랑 노래를 들려주고 향기를 품어 내면서 벌과 나비를 초청하는 포도나무 꽃송이를 보여준다. 남자는 향기로운 사랑의 노래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와 함께 가자고 초청한다.

남자는 여인에게 자기의 용모나 소유를 보여주지 않고 자연에서 나는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고 자연의 향기를 맡게 한다. 그 향기로운 초청을 받아들이면 두 사람도 자연의 일부가 되어 새처럼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포도나무처럼 향기를 뿜어내며 결실할 것이다. 자연의 노래로 자기의 사랑을 노래하는 아가서는 문자 그대로 ‘노래 중의 노래’ 곧 ‘최고의 노래’이다. 이러한 사랑의 노래를 들을 때에 우리는 지혜도 얻는다. 외적인 것으로 여인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추위와 비가 그친 뒤에 펼쳐진 세계, 곧 사랑의 노래와 향기가 가득한 곳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초청하면 그 여인도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향기를 뿜어내고 결실하는 데에 이를 것이다.

남자의 초청은 매우 자연스럽고 아름답다. 그러나 그러한 초청을 받고도 여인은 바로 나오지 않는다. 주위에는 사랑의 향기와 소리가 가득하지만 여인의 자태는 보이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여인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집을 짓고 사는 비둘기와 같다.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있는 이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의 초청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자 남자는 ‘모습’을 보여 주고 ‘목소리’를 들려 달라고 간절히 청한다. 여인도 남자가 달려오는 모습을 소리로 들었는데(28), 남자도 청각과 시각의 이미지로 호소한다. ‘모습-목소리-목소리-모습’의 대차구조적 표현은 중앙에 있는 ‘목소리’를 강조한다. 그는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뿐 아니라 감미로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여인은 멀리에서 사슴처럼 달려오는 남자의 모습에서 사랑의 목소리를 들을 만큼 남자에게 끌리는 것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인 것만은 아니다. 마음으로 끌리지만 주저함과 신중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인> 2:15-17

개역	사역
15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15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을 잡아주세요. ⁸⁾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을 망치고 있어요.”
16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 떼를 먹이는구나	16 나의 연인은 나의 것, 나는 그의 것. 그는 백합화 사이에서 풀을 뜯고 있네. ⁹⁾
17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테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17 날이 지고 ¹⁰⁾ 그림자가 물러날 때까지 나의 연인이여, 돌아오세요. 베테르 산 위의 노루와 젊은 사슴처럼 오 세요! ¹¹⁾

여우와 포도원

15절의 말은 (우리의) 포도원과 (작은) 여우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되었다. 첫째는 앞에 나오는 짐승이나 식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각각 따지지 않고 자연 현상으로 본 것처럼 남자가 봄에 여우 사냥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우는 쉽게 잡을 수 있으므로 포도원을 돌보는 일도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구체적으로 초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목가적인 모습이지만 여인의 망설임을 이야기한 14절의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다.

둘째는 우리의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사랑에 장애가 되는 것을 없애자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아가서에서는 여인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는데(1:6; 8:11-12), 그 관점에서 읽으면 포도원인 여인에게 해를 가한 오라버니나 마을의 순찰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인이 어려움을 피하여서 숨었는데 남자가 그것을 제거하고 여인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말도 된다. 이 해석을 취하면 14절에서 여인이 숨은 이유에 대한 좋은 설명이 된다. 남자는 여인이 망설이는 것을 잘 해결하여 주면서 사랑을 얻는 것이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아직 열매를 맺는 단계, 곧 혼인의 단계에 가지는 않고 사랑이 무르익어 가는 과정에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사랑의 고백

8) ‘잡아주세요’는 2인칭 복수 명령형이다. 여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의 강렬함을 표시하려고 복수를 사용하였을 수도 있다.

9) ‘풀을 뜯고 있다’(로에)라는 동사에 목적어를 첨가하여서 “양떼를 치고 있다” 하고 번역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2:1에서 여인이 자기를 백합화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목적어를 첨가하지 않아도 뜻이 통하고 오히려 두 사람의 내밀한 관계를 더 선명히 표현하는 말이 된다.

10) 직역하면 ‘날이 불다’이다. ‘날의 바람이 불다’는 말을 새벽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NIV, NET) 창세기 3:8이나 예레미야 6:4와의 연관성을 고려하거나 이 문맥을 고려하면 늦은 오후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한다.

11) ‘돌아오라...갈아라’로 두 가지 명령형이 나오는데 이러한 경우는 그 중 하나를 부사적으로 옮기기도 한다. 여기에서도 강조점은 ‘돌아오라’에 있어서 ‘갈아라’를 부사로 옮겼다.

남자가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잡는다고 대답한 기록이 없다. 그렇지만 16-17절의 말을 보면 여인이 남자가 여인의 부탁대로 포도원으로 비유된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고 보호하여 주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남자의 대답을 기록하지 않고 여백에 남겨 둠으로써 독자의 아름다운 상상력을 더 불러일으킨다.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속하고, 남자는 그 여인에게 속하였다고 고백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적인 언어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렘 7:23; 겔 37:27; 호 2:22. 참조. 창 17:7) 하면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여인은 남자와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로 소망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¹²⁾

두 사람이 서로에게 속하여 혼인 관계에 들어가기로 소망하는 것은 “그는 백합화 사이에서 풀을 뜯고 있네”라는 말로 표현된다. 개역에서는 ‘양떼’라는 말을 첨가하여 번역하였다. 그렇게 읽으면, 백합화 들판에서 한가롭게 양떼를 먹이고 있는 자기의 사랑하는 목자를 부르는 것이 된다(참조. 1:7). 그런데 원문대로 읽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백합화 사이에서 풀을 뜯듯이 백합화를 즐기는 것을 묘사하는 말이 된다. 앞에서 이 여인을 백합화로 표현하고(2:1, 2) 또한 여인의 가슴(4:5)과 입술(5:13)을 백합화로 표현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노루와 어린 사슴으로 비유된 사랑하는 사람이 백합화 가운데서 풀을 뜯고 있다(2:9, 17; 6:3).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하여 두 사람이 서로에게 흡족함을 주는 모습을 이러한 목가적인 언어로 그려내고 있다.¹³⁾

2:17은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간다는 말이 어스름한 저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새벽을 의미할 수도 있다. “돌아와서”라고 번역된 명령형도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도 되고 여인에게 돌아오라는 말도 된다. 이것은 2:17과 3:1의 문맥에서 결정될 것인데, 3:5까지를 한 단위로 보면 3:1에서 여인이 혼자 있는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2:17에서는 밤이 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해할 수 있다. 4:6에서도 같은 표현이 밤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다.¹⁴⁾

그러나 3:1을 다른 노래로 이해하는 주석가들은 사슴으로 표현된 남자가 여인과 선선할 때에 와서, 혹은 새벽이 될 때까지 함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 ‘돌아간다’는 말도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 돌아오는 것을 뜻한다. ‘베테르’은 향료, 혹은 갈라진 바위틈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입장에 선 주석가들은 ‘베테르 산’이 여인의 가슴을 상징적으로 표

12) Pieter de Vries, "The Interpretation and Preaching of the Song of Songs", *Puritan Reformed Journal* 4:2 (2012), 12.

13) I. Provan, *Ecclesiastes/Song of Songs*, 288.

14) R. Hess, *Song of Songs*, 100-101.

현하며 노루와 작은 사슴으로 비유된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즐거움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¹⁵⁾

지식을 따라서 함께 사는 것

남자가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초청하는 장면은 한 폭의 그림과 같다. 아가서 2장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소리가 들리고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림과 같다. 남자는 강압적으로 여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그의 마음에 이야기하였다. 자연의 사랑을 배경으로 여인에게 초청을 하였다.

베드로 사도도 남자에게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며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이니 귀하게 여기고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가르쳤다(벧전 2:8).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며 영원한 생명을 함께 받을 사람으로 아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이 없으면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아내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는 말이다. 어려서 자란 환경과 성격도 잘 알고서 거기에 맞게 대하고 함께 사랑을 이루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목동이 여인에게 청혼을 할 때에도 여인의 연약함을 고려하면서 사랑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 남자는 여인에게 자기의 지위와 능력을 자랑하면서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참된 사랑은 지식에 근거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함께 얻을 지식도 있고, 더불어서 자기의 아내 혹은 아내가 될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사람의 연약한 것을 채워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혼인하는 것이다. 남자는 이러한 태도로 청혼을 하는 것이고, 여인은 이러한 남자의 청혼을 받아 들여야 한다. 지식이 없는 남자와 혼인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멀어지는 길을 택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혼인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하고 바른 지식 가운데서 결정하여야 한다.

<여인> 3:1-5

개역	사역
1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3:1 밤새도록 ¹⁶⁾ 나의 침상에서 내가 진정으로 ¹⁷⁾ 사랑하는 이를 찾아다녔 네. ¹⁸⁾
2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그를 찾아다녔으나 찾지 못하였네. 2 “나는 일어나 성읍을 돌아다니리라. 거리와 광장에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15) Pope, *Song of Songs*, 409-11.

<p>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3 성중의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4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5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 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p>	<p>를 찾아다니리라.” 그를 찾아다녔으나 찾지 못하였네. 3 성읍을 돌아다니는 야경꾼들이 나를 찾았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를 여러분은 보셨나요?” 4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나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를 찾았네. 나는 그를 붙잡고 계속 놓아주지 않았네.¹⁹⁾ 나의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하신 분의 방으로 그를 데리고 갈 때까지. 5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맹세하게 한다. 사랑이 원할 때까지는 사랑을 일깨우거나 일어나게 하지 마라.</p>
--	---

3:1-5에서는 ‘찾는다 - 사랑한다 - 발견한다/만난다’는 동사가 1-4절에 고루 나온다. 동사 셋을 처음 네 절에서 반복하여서 여인의 마음을 나타낸다. 2장에서는 남자의 초청에 망설이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3장 초반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모습을 그린다. 여인이 밤에 다닌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여인은 자기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 나선다. 여인은 남자를 찾아서 데리고 집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다. 사랑을 일깨우지 않는다.

3:1-5를 사실적인 서술로 보기는 어렵다. 그 당시의 풍습으로 보아서 여인이 밤중에 돌아다니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또한 마을의 순찰자들이 여인의 사랑하는 사람을 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 구절의 비현실성과 침상이라는 표현 때문에 꿈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²⁰⁾ 낮에 만났던 연인을 꿈속에서 찾아다녔다는 식으로 해석하는데, 이것도 불가능한 해석은 아니지만 꿈속에서 현실을 재구성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시(詩)가 갖는 창조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것이 된다.

여기에서는 왜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졌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야

16) ‘밤들’이라는 복수를 ‘연장의 복수’로 이해하여 ‘밤새도록’으로 옮겼다.

17) ‘나의 영혼이 사랑하는 이’

18) ‘비케쉬’는 ‘찾다, 갈망하다’는 뜻이다. ‘비케쉬’가 1-2절에서 네 번 사용되면서 여인의 갈망을 강렬히 표시한다. 그 열망을 표현하려고 ‘찾아다녔다’라고 번역하였으나 실제로 ‘걸어다닌 것’은 아니다. 침상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점은 분명할 것이다.

19) ‘붙잡고’는 완료형이고 ‘놓지 않을 것이다’는 미완료형이다. 미완료형은 아직 완료되지 않고 지속적인 행위를 표시한다. 이것을 표현하려고 ‘계속 놓아주지 않았네’로 옮겼다.

20) J. Snaith, *Song of Songs*, 45-49.

기하지 않는다. 신문 기사처럼 헤어지고 만나는 과정을 자세히 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마음에 사랑하는 자가 옆에 없을 때에 공허함과 그것을 메우려는 간절함, 그리고 찾았을 때에는 붙잡고 혼인의 관계에 들어가기까지 놓지 않은 것만을 기록할 뿐이다.

여인이 밤에 침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밤에’는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밤마다’로 이해할 수 있다. 여인은 밤마다 침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오매불망(寤寐不忘)하다가 어느 날 밤에는 그 남자를 찾아서 나선다. 여인이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예외적인 일이다. 그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는 그 당시의 사회적 관습을 어기고 그를 찾아 나선 것이다.

여인은 동네의 작은 골목이나 광장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고, 대신 성을 순찰하는 사람을 만났다. 3절을 직역하면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이 나를 찾았고 나는 나의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이다. 그 여인이 순찰하는 사람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 순찰하는 사람들이 여인을 찾았다. 이것은 여인의 눈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잘 나타내는 말이다. 여인의 눈은 마음으로 원하는 그 사람만을 향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보이지도 않았음을 암시한다.

순찰하는 사람들은 여인의 질문에 대하여서 대답하지 않는다. 이것은 “모른다”고 말한 것과 비슷하다. 순찰하는 사람들은 그날 밤에 돌아다닌 사람들에게 대하여 잘 알 것이나 그러한 사람이 침묵한 것은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이 아가서에서 두 번 나온다. 5:7에서는 여인에게 물리적인 해를 입히는 자들로 나온다. 그들은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 아니라 방해가 되는 어떤 것의 상징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혹은 오라버니나 가족의 반대가 될 수도 있으며(1:6; 8:8), 혹은 자기 마음의 어떤 생각, 즉 사랑하지만 주저하게 만드는 어떤 생각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확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순찰자들이 대답도 하지 않고 지났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를 찾았다. 어디에서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없다. 만난 뒤에는 자기 어머니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혼인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고(창 24:67) 나오미는 룯에게 재혼을 권고하면서 “네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룯 1:8). 여기에서는 ‘나를 낳은 방’이 아니라 ‘나를 잉태한 방’이라고 하여서 사랑을 나누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아이를 낳는 것 이전에 잉태하는 일에서 자기의 어머니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어서 5절에서는 2:7과 같은 후렴구가 나온다. “사랑이 원할 때까지는 사랑을 일깨우

거나 일어나게 하지 마라”는 말로써 이 문단을 마무리한다. 육체적인 친밀함을 이야기한 다음에 나오는 이 구절은 2:7에 대한 해설에서 이야기한 대로 때가 되기 전에는 사랑을 자극하지 말라는 것이다. 일종의 제한을 가하는 것인데, 이것은 독자로 하여금 사랑이 무엇인가를 더욱 생각하게 한다. 8:4에 이 말이 한번 더 나오고 바로 이어서 8:5-7에서는 혼인 관계에 들어간 사람의 강렬한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참된 사랑은 여호와와 불과 같이 강렬한 것이고 사람이 끌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마지막에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까지 독자들로 하여금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도록 한다.

억압과 절제

아가서는 사랑에 대하여 열려 있다. 처음부터 여인이 남자에게 왕의 침실로 데리고 가기를 원한다는 말로 시작한다. 여인의 성에 대하여서도 억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면을 표시한다. 3장에서는 여인이 남자를 찾아서 어머니가 자기를 잉태한 침실로 데리고 들어간다. 여인은 비둘기처럼 숨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이루어간다.

그렇다고 하여서 아가서가 사랑의 방종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의 절제를 가르치며, 사랑이 강렬한 것이지만 거기에 자기를 맡기는 태도를 경계한다. 사랑의 아름다움과 강력한 힘을 이야기한 다음에 때가 되기 전에는 그것을 깨우지 말라고 선을 긋는다.

사랑의 힘과 절제를 같이 균형 있게 가르치는 점에서 아가서는 매우 독특하다. 우리 주위를 보면 성에 대하여서는 대체로 억압 아니면 방종의 태도를 취한다. 성에 대하여, 특히 여성의 성에 대하여는 대체로 억압적이다. 유교에서는 여인의 역할이 제사를 지낼 남자아이를 낳는 것이었고, 여인의 여성다움에 대하여서는 애써 외면하였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여성의 자유를 강조하며 성에 대하여서도 개방 또는 방종으로 흐르고 있다.

아가서에서도 사랑에 대한 남자와 여자의 태도에는 차이가 있다. 여자는 남자를 ‘향기’로 비유하고 느끼지만(1:3, 13) 남자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그렇지만 서로를 육체적으로 원하는 것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표현된다. 남자는 적극적이고 여자는 수동적이며, 따라서 남자가 폭력적으로 대하면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 여자가 좋아하며 따른다는 식의 이야기는 별로 근거가 없다.

바울 사도는 정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혼인하라고 가르쳤다(고전 7:1-7). 성적인 욕구는 강력한 것이고 절제할 수 없으면 음행이라는 더 큰 죄를 짓기 쉽기 때문에 혼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기의 몸을 자기가 주관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맡겨야 한다고 하였다. 두 사람이 혼인의 언약에 들어갔으면 상대가 원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한다. 남자도 자기의 몸

을 자기가 주관하지 못하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사도는 성적인 욕구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비록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동일하다고 가르친다.

물론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서 혼인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혼인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혼자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가르친다.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집가는 것이나 장가가는 것이 없다. 지금도 천국을 위하여서 혼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 날에 완성되고, 그 전까지는 기다림이 있다.²¹⁾

성경은 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가르친다. 그리고 절제하라고 한다. 이것이 건전한 성이다. 혼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모두 사실이다. 이것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는 말씀이다.

21) R. Hess, *Song of Songs*, 108.